

# 순천만서 월동하던 흑두루미 7238마리, 번식지 찾아 북상

### 국제두루미재단,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 노력에 주목 월동 개체수 늘며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 확대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월동기를 마치고 번식지를 찾아 북상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는 7238마리이며, 작년보다 41% 개체수가 증가했다. 2022년 11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순천만으로 역유입했던 흑두루미 중 절반가량인 3000여마리가 2023년 가을에 일본으로 가지 않고 순

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는 이동 시기에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흑두루미도 8661마리로 조사됐다. 국제두루미재단은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과 한국 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늘면서 대대동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뿐만 아니라 별량면 학

산들, 해룡면 상내들 등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 어싱길과 순천만 탐조대는 흑두루미 탐조거리가 70~80m로 가까워지면서 숙박과 연계한 탐조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큰고니, 황새 등 순천만 조류 종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섬매지기 복원, 무논 조성, 농경지 내 환경저해시설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탐조 신동선을 개발해 체류형 고품격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 갯벌에는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도요물떼새들이



순천만 찾아온 흑두루미.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봉강친환경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길에 오르다

### 해외 수출 확대로 기술력 입증

광양시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해외 수출길에 오른다. 시에 따르면, 8일 광양시 봉강면 소재 봉강친환경영농조합에서 가축분퇴비 220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 축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식에는 박광기 법안대표와 전라남도 관계자,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선적된 소수나다 펠릿비료는 컨테이너 차량 10대 불량, 220톤에 이른다. 이번 베트남 수출은 법인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고 직접 수출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성사됐다.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혼합유박 1종, 혼합유기질 3종, 가축분퇴비 2종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설립돼 ISO 22000 인증, 유기질비료 제조시스템 특허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로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 12% 저



렴하게 비료를 공급하고, 연간 약 1억 5천만원 규모의 활인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해 왔다. 박광기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베트남으로는 2020년도 첫 수출 이후 코로나19로 수출이 중단됐었지만, 재정부 끝에 다시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며 "올 한해 약 4천톤, 70

만톤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유기질퇴비 다각화로 인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 등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인의 희망찬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BS삼총사' 이모티콘 받고 녹차의 고장 보성으로

### 보성군, 다향대축제 기념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보성군은 오는 12일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을 통해 보성군 SNS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BS삼총사'는 보성군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와 벌교꼬막·보성기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2020년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한 '우리 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BS삼총사' 이모티콘은 16종이다. 보성군 SNS 캐릭터 녹차몬·꼬막몬·기위몬이 다향대축제를 응원하고, 보성차밭을 즐기는 모습 등이 익살스럽게 표현됐다.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선착순 3만5000명에게 배포한다. 보성군청 채널을 미리 추가해 두면 순차적으로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송된다.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이모티콘 이외에도 보성군의 주요 소식과 축제·공연 정보 등의 소식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보성군은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 3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한국차문



화공원 일원에서 'BS삼총사가 쓴다'라는 보성군 SNS 홍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 여수시, 섬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조식비·여객선 운임비 지원

여수시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조식비와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환경이 취약한 섬 지역 고등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함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코자 함이다. 여객선 운임비는 현재 섬 주민의 운임료 1,000원을 준용, 차액분을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또한 관내 유일한 섬 지역 고등학교인 여남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게 성장기 체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1:1 대응해 조식비를 지원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고흥군, 내일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위한 토론회

고흥군은 벌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고흥문화회관(김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흥군과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 김시곤 교수가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목포대 신순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 김시곤 교수가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목포대 신순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